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와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

한주랑
서정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The Effects of Metacognition and Self-leadership on Social Responsibility in Nursing Students

Ju-Rang Han
Division of Nursing, Seojeo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와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과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Y시 S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131명이었다. 자료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SPSS 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메타인지와 셀프리더십, 사회적 책임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타인지와 셀프리더십은 모두 사회적 책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메타인지가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셀프리더십이 부분 매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를 높이고 셀프리더십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메타인지, 셀프리더십, 사회적 책임, 대학생, 간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metacognition and self-leadership on social responsibility in nursing students and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etacogni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131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metacognition, self-leadership and social responsibility. Metacognition and self-leade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responsibility. Self-leadership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Conclusively, this results indicate a need to develop programs that effectively promote the self-leadership and maximize metacognition to increase social responsibility in nursing students.

Key Words : Metacognition, Self-leadership, Social Responsibility, College Student, Nursing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공공의, 특히 취약한 대중의 사회적 요구와 건강에 대한 지지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 사회와 함께 책

임을 공유하고 있다[1]. 더욱이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자연재해, 불공평한 자원의 분배, 글로벌 보건/의료환경 변화 등으로 인류의 건강이 위협받게 되면서 간호사들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2].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란 타인의 요구나

*Corresponding Author : Ju-Rang Han (jrhan27@seojeong.ac.kr)

Received August 30,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Revised October 18,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보호하고 두둔하는 것이며[3], 개념적으로는 개인이나 사회의 불안정한 생활 조건이나 빈곤, 치료 접근성 부족 등과 관련된 건강 장벽에 대한 돌봄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1]. 개인의 경우 책임성이란 자립 성향을 강화하고, 자신의 자아인지능력을 확대하며, 자기결정성을 보장하는 능력을 의미한다[4].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간호사들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직업의 정체성과 자기결정성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간호대학생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 전문직 발전을 위한 법적·윤리적 책임인식 능력을 간호사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이를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시 달성해야 할 프로그램 학습성과에 포함시킨 바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5]의 연구에서 전공교육만족과 간호전문직관, 사회성 등이 사회적 책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oely et al.[6]의 연구에서는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 사회성 및 정치적 인식, 시민행동, 전문직 리더십 등이 사회적 책임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대학생, 특히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취하는 사고 및 행동전략이며, 자신을 이끌어가기 위해 행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즉 셀프리더십은 자기 자신이 세운 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학습을 통해 발전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셀프리더십이 높은 사람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수행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7]. Neck & Mans[8]는 셀프리더십의 이론적 근거가 사회적 인지이론과 내적 동기화이론에 있다고 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여 적응을 위한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달성을 위해 자기관찰, 자기통제, 자기반성을 통한 셀프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Craig L.P et al.[9]은 셀프리더십이 전통적인 하향식 중앙집권적 리더십

(centralized leadership)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무책임(CSIR: corporate social irresponsibility)에 반하여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은 사회적 책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까지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책임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힌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이외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조직유효성, 직무만족도, 스트레스 등[10] 있다.

메타인지도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는데[10], 정 등[11]은 메타인지 하위집단에 비해 상위집단이 셀프리더십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 메타인지란 자기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자기의 사고과정을 알고 조절하며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이전에 습득하였던 경험과 기술 및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는 개인의 생각이다[12]. 또 메타인지는 자신의 기억과 상상력, 주의력, 추측, 지식 등의 인지과정을 알고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전략과 목표를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13]. 메타인지는 학습몰입, 비판적 사고, 자기주도학습, 셀프리더십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14, 15]. 메타인지와 셀프리더십 간의 연구는 최근 들어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책임과 셀프리더십의 연관성이나 사회적 책임과 셀프리더십, 메타인지 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셀프리더십과 메타인지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이 인지하는 셀프리더십과 메타인지가 사회적 책임성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메타인지가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최근 간호사에게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와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

료 사용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및 셀프리더십, 사회적 책임의 수준을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및 셀프리더십, 사회적 책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및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가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셀프리더십, 사회적 책임의 관계를 파악하고, 메타인지와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Y시 S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과 4학년 학생 1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윤리적인 고려를 위해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자료 수집 중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로 인해 수집된 정보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설문지는 익명 처리될 것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총 136부 이었으며, 이 중 응답이 미비한 5부를 제외하고 총 131부를 분석 자료에 활용하였다. 자료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수집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Prinrich et al.(1991)이 제작한 MSLQ(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학습 동기화 전략에 관한 질문지) 44 문항 중 이[16]가 메타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31문항으로 재구성된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는 비판적 사고(critical) 5문항, 연습(rehearsal) 4문항, 조직화(organization) 4문항, 정교화(elaboration) 6문항, 자기규제(self-regulation) 12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메타인지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16]의 연구에서는 각 요인별 Cronbach' α 값이 .64 ~ .80 범위에 있었으며, 한 등[15]의 연구에서 전체 도구의 Cronbach' α 값은 .846 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920으로 나타났다.

2.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1983)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를 김[17]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18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자기기대, 목표설정, 리허설, 자기비판, 자기보상, 건설적 사고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17]의 연구에서 Cronbach' α =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69이었다.

2.3.3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은 Conrad와 Hedin(1985)이 개발하고 김[4]이 한국적 상황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한 27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사회적 책임성 태도, 책임성 의무, 책임성 효능감, 책임성 능력, 책임성 수행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4]의 연구에서 각 요인별 Cronbach' α 값이 .686 ~ .784 범위에 있었으며 방[18]의 연구에서 Cronbach' α = .892 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85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대상자가 지각한 메타인지, 셀프리더십, 사회적 책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 대상자가 지각한 메타인지, 셀프리더십, 사회적 책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가 지각한 셀프리더십과 메타인지가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 및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메타인지의 매개 효과는 Baron 과 Kenny[19]의 3단계 절차를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으로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 114명(87.0%), 남자 17명(13.0%)이었다. 학년은 1학년 81명(61.8%), 4학년 50명(38.2%)이었다. 종교는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75명(57.3%),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56명(42.7%)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33명(25.2%), 천주교 14명(10.7%), 불교 9명(6.9%)의 순이었다(Table 1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3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7 (13.0)
	Female	114 (87.0)
grade	1	81 (61.8)
	4	50 (38.2)
Religion	Yes	56(42.7)
	Christianity	33(25.2)
	Buddhism	9(6.9)
	Catholicism	14(10.7)
	None	75(57.3)

3.2 메타인지, 셀프리더십, 사회적 책임의 정도

메타인지의 평균평점은 5점 만점 중 3.72±0.78점이었으며, 셀프리더십은 3.71±0.70점, 사회적 책임은 3.69±0.6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Table 2. Level of Metacognition, Self-Leadership, Social Responsibility (N=131)

Variable	Minimum	Maximum	M±SD
Metacognition	1.50	5.00	3.72 ± 0.78
Self-Leadership	2.00	5.00	3.71 ± 0.70
Social Responsibility	1.50	5.00	3.69 ± 0.66

3.3 메타인지, 셀프리더십, 사회적 책임 간의 상관관계

메타인지는 셀프리더십($r=.308, p<.001$), 사회적 책임($r=.290,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셀프리더십도 사회적 책임과 ($r=.399, p<.001$)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참고).

Table 3. Correlation of Metacognition, Self-Leadership, Social Responsibility (N=131)

Variable	Metacognition	Self-Leadership	Social Responsibility
	r(p)	r(p)	r(p)
Metacognition	1		
Self-Leadership	.308*	1	
Social Responsibility	.290**	.399*	1

$p<.001$

3.4 메타인지와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 및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메타인지와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 및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증은 Baron과 Kenny [19]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에 따라 검증하였다. 1단계의 메타인지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308, p<.001$), 2단계의 메타인지가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290, p<.005$). 3단계에서 메타인지와 매개변수인 셀프리더십을 예측변수로, 사회적 책임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beta=.185, p<.05$),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책임($\beta=.321, p<.001$)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메타인지의 β 값을 확인한 결과 3단계의 β 값이 .185로 2단계의 β 값 .290 보다 작아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Durbin-Watson 지수는 1.649로 잔차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905로 0.1 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계수(VIF)도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Table 4 참고).

Table 4. Mediating effect of Shared 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and Learning Flow (N=131)

Step	Variable	β	t	p	Adjusted R ²	F	p	VIF
1	Metacognition → Self-Leadership	.308*	3.681	.000	.088	13.548	.000	1.000
2	Metacognition → Social Responsibility	.290*	3.443	.001	.077	11.855	.001	1.000
	Metacognition, Self-Leadership → Social Responsibility				.177	15.013	.000	
3	Metacognition → Social Responsibility	.185*	2.208	.029				1.105
	Self-Leadership → Social Responsibility	.321*	4.090	.000				1.105

* $p < .001$, ** $p < .05$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와 셀프리더십, 사회적 책임의 수준과 메타인지와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 및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와 관련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수준은 5점 만점 중 3.7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 분야 대학생들의 메타인지를 측정 한 등[15]의 연구에서 3.37점,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 등[20]의 연구에서 3.50점보다 높은 결과이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14]의 연구에서 7점 만점에 5.07점(5점으로 환산 시 3.62점)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 따라 측정도구가 다르므로 직접 비교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계열별 대학생들의 메타인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수준은 5점 만점 중 3.7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을 측정 한 서 등[22]의 연구에서 3.68점, 왕 등[10]의 연구에서 3.64점과 유사한 결과였으나,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 등[23]의 연구에서 3.36점, 김 등[24]의 연구에서 3.40점, 장 등[25]의 연구에서 3.37점 보다는 높은 결과이다. 이들의 연구는 모두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선행연구로 유추해 볼 때 임상간호사에 비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결과이다. 이는 직위나 연령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에 높다고 한 연구 강 등[26]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므로 이와 관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의 수준은 5점 만점 중 3.6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에 대

한 인식정도를 측정 한 김 등[5]의 연구에서 3.39점보다는 높으며, 인문·공학·자연·예체능 계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26]의 연구에서 3.48점보다는 낮은 결과이다. 방 [26]의 연구결과 공학계열 대학생에 비해 사회계열의 대학생들이 사회적 책임의 하위요소 중 책임성 태도와 책임성 의무 측면에서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따라서 계열별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 수준 등을 비교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 간호사 혹은 간호대학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는 사회적 책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Wellman[27]은 메타인지의 기능을 내적 정신 상태에 대한 인식활동이며, 더 나아가 적절한 지식과 전략을 활성화하고 통합하는데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자기 규제 또는 자기통제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점에서 메타인지는 간호대학생들이 학업 중에 터득한 지식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기규제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사회적 책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자율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책임 간의 관계를 직접으로 연구한 논문은 없었으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 등[28]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Schnake[29]는 조직시민행동이란 조직에서 구성원이 공식적 역할 외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바람직한 역할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동료들과 협동하며 기꺼이 도와주고 봉사하

는 행동들을 의미한다[30]. 김 등[31]은 조직시민행동과 사회적 책임과는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추후 연구를 통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가 사회적 책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셀프리더십은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타인지는 사회적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셀프리더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간호대학생들은 메타인지가 높고 셀프리더십이 강할수록 사회적 책임감도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간호대학생 개인이 학업과정 중에 습득한 지식과 기술, 경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자신이 세운 최선의 목표달성을 위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타인이나 사회를 위해 책임감있는 행동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현대의 건강 체계 내에서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 중 대상자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간호사 개개인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학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며, 이의 한 방안으로 메타인지와 셀프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Y시 S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신중한 해석과 주의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와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과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메타인지와 셀프리더십, 사회적 책임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메타인지와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메

타인지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이 부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에서 메타인지를 최대한 높이고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Y시 1개 대학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1학년과 4학년 대학생들로 대상이 제한되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전 학년의 학생을 포함하고, 간호학 혹은 간호학 이외의 전공 대학생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한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책임성 간의 결과를 재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2012). The ICN code of ethics for nurses. <http://www.icn.ch/who-we-are/code-of-ethics-for-nurses>.
- [2] Nurses' Social Responsibility and Role. (2011.11.02).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1&idx=6569>.
- [3] V. L. Tye, P. K. Nicholas, I. B. Corless, D. M. Barry, P. Hoyt, J. J. Fitzpatrick & S. M. Davis. (2009). Social responsibility of nursing: a global perspective. *Policy Politics Nursing Practice*, 10(2), 110-118. DOI : 10.1177/1527154409339528
- [4] J. S. Kim. (2000). *(The) Impact of youth service learning on the development of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Doctoral dissertation, Myong Ji University, Seoul.
- [5] J. G. Kim, T. W. Lee & N. K. Han. (2018).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1), 21-29. 2018. DOI : 10.1111/jkana.2018.24.1.21
- [6] B. E. Moely, M. McFarland, D. Miron, S. Mercer & V. Ilustre. (2002). Change in college students' attitudes and intentions for civic involvement as a function of

- service-learning experience,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 Learning*, 9(1), 18-26.
http://hdl.handle.net/2027/spo.3239521.0009.102.
- [7] C. C. Manz & H. P. Sims. (1991). Super-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19(4), 18-35.
- [8] C. C. Neck & C. P. Mans. (2013).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6th ed.* London : Pearson publishers, 127-153.
- [9] C. L. Pearce & C. C. Manz. (2011). Leadership centrality and corporate social Ir-responsibility(CSIR): The potential ameliorating effects of self and shared leadership on CSIR.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2, 563-579.
DOI : 10.1007/s10551-011-0828-7.
- [10] H. J. Wang, S. A. Jung, H. E Park, H. S. Yoo, Y. H. Bae & J. Y. Kim. (2016). The Metacognition,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9), 619-627.
DOI : 10.5762/KAIS.2016.17.9.619
- [11] S. Y. Joung & J. Y. Kim. (2012). Relationships between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metacognition and self-leadership.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17(9), 97-119.
- [12] S. N. Elliott, T. R. Kratochwill, J. L. Cook & J. F. Travers. (2000). *Educational psychology: effective teaching, effective learning. 3rd ed.* NY : McGraw-Hill Humanities.
- [13] P. R. Pintrich, D. R. Brown, W. J. Mckeachie & C. E. Weinstein. (1994). *Student motivation, cognition and learning.* Hillside, Nj : Erlbaum, pp.257-274. Cited by H. J. Wang, S. A. Jung, H. E Park, H. S. Yoo, Y. H. Bae & J. Y. Kim. (2016). The Metacognition,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9), 619-627.
DOI : 10.5762/KAIS.2016.17.9.619
- [14] J. R. Han. (2017). The effects of metacognition on learning flow of team-bas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 mediating effects of shared leadershi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1), 375-383.
DOI : 10.14400/JDC.2017.15.11.375
- [15] J. R. Han & J. M. Kim.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metacognition and learning flow in college students in healthcare fiel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273-282.
DOI : 10.14400/JDC.2017.15.6.273
- [16] W. M. Yi. (2004). *Effect of metacognition and flow level in learning through educational computer game on problem solving ability.* Master's Thesi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 [17] H. S. Kim.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18] D. H. Bang. (2013). *Human rights awareness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effect on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19]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20] S. Y. Kim, H. J. Byun & M. H. Ko. (2015). The effects of achievement goals on undergraduates.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6(3), 63-80.
DOI : 10.16881/jss.2015.07.26.3.63
- [21] D. H. Kim. (2014). Metacogn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in Korea. *Global Health Nurs*, 4(1), 11-17.
- [22] I. S. Seo, H. E. Park & J. Y. Kim. (2016). Impact of self-leadership and metacognition on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6), 3423-3436.
- [23] Y. M. Cho & M. S. Choi. (2016). Effect of clinical nurses's basic psychological need, self-leadership and job stress on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8), 343-353.
DOI : 10.14400/JDC.2016.14.8.343
- [24] S. Y. Kim, E. K. Kim & B. S. Kim. (2016). Effects of nurses' self-leadership and team trus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2(4), 353-361.
DOI : 10.11111/jkana.2016.22.4.353
- [25] M. K. Jang & H. Y. Kim. (2018).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elf-esteem on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51-59.
- [26] Y. S. Kang, Y. J. Choi, D. L. Park & I. J. Kim. (2010). A study on nurses' self 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2), 143-151.
- [27] H. M. Wellman. (1985). The origins of metacognition. *Metacognition, cognition and human performance*, (1), New York : Academic press. 1-31.

- [28] J. H. Park, E. K. Yun & S. S. Han. (2009). Factors influencing nurs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Journal Korean Academy Nursing*, 39(4), 499-507.
- [29] M. Schnake. (1991). Organizational citizenship: A review, proposed model, and research agenda. *Human Relations*, 44(7), 735-759.
- [30] S. K. Lee, D. J. Lee & E. Y. Jang.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ccording to styles of leadershi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8(4), 23-136.
- [31] H. S. Kim, J. D. Kim, S. D. Kwon, Y. W. Song, D. Y. Chun & Y. J. Joo. (2017).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CSR and OCB : Focused on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2), 97-134.
DOI : 10.24991/KJHRD.2017.06.20.2.97

한 주 량(Han, Ju Rang)

[정회원]



- 1981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사)
- 1987년 8월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 200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
- 2003년 8월 ~ 2014년 2월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부장
- 2014년 2월~현재 : 서정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간호교육
- E-Mail : jrhan27@seojeong.ac.kr